

진로교육 바로 알기

아는 만큼 보인다, 진로심리검사

진로심리검사는 자신의 관심사 또는 잠재된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주로 진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커리어넷(www.career.go.kr)에서도 아래의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니 자녀의 성향을 알아보는 데 활용해보세요.

[커리어넷 > 진로심리검사 > 심리검사]

- **직업적성검사:** 자녀가 가진 다양한 능력이 어떤 직업에 어울리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검사 결과로 제한된 직업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능력과 자녀와의 적합성을 알려주어 진로탐색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직업가치관검사:** 능력 발휘, 자율성, 보수, 자기계발, 안정성, 사회적 인정 등의 가치관 중에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알아보고, 진로결정에 있어서 어떠한 직업과 어울리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 **직업흥미검사(K),(H):** 자녀가 어떠한 분야에 관심과 흥미가 있으며, 그에 적합한 직업과 유사한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 **진로성숙도검사:** 자녀가 스스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진로에 대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학교에서 진로·진학 상담을 받을 때 검사 결과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진학한 자녀와 같이 진로의 방향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자신의 목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며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아직 진로가 명확하지 않은 자녀의 경우에는 진로심리검사를 토대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분야와 직업은 무엇인지 확인하여 진로 상담 등을 통해 진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진로심리검사의 결과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 정답은 아닙니다. 검사의 결과가 자녀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낙심하기보다 자녀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녀 진로상담

아이의 진로를 바꾸라고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Q. 고3인 저희 아이는 지리 과목에 흥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범대 지리교육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임용 인원이 전국적으로 몇 명 되지 않다 보니 진로를 바꾸라고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A. 사범대학의 경우 출산율의 저하로 임용고시 선발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대학에서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인문사회계열뿐만 아니라 사범대학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부모님께서 걱정하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지리교사를 목표로 해왔다면 그동안의 학교생활도 '지리'와 '교사'에 초점을 두고 활동했을 것으로

보이며,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세인 입시 흐름으로 볼 때 학교생활기록부도 사범대학, 특히 지리교육과에 맞춰 관리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와서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면 자녀가 새로운 분야를 찾는 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되고 입시에도 집중하기 어렵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대학 지리교육과의 교육과정도 교사 양성뿐만 아니라 지리정보시스템 전문가 양성 등 공학계열과의 융합을 통해 사회 진출 분야를 넓히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니, 자녀가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것이 자녀에게는 더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출처: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상담 사례)

[로봇이 살아서 움직이는 공연을 기획하다 - 정진미(로봇공연연출가)]

■ 건강한 가치관을 만드는 선한 이야기를 써요

정진미 대표는 중학교 때부터 영화를 하겠다고 부모님께 선언했다. ‘이야기’를 만든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명확한 꿈을 따라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했고 거의 매 학기마다 혼자서 연출을 맡아 영화를 만들었다. 졸업 후에는 한동안 시나리오 작가로 일했는데, IMF와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서 잠시 꿈을 접고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사를 창업해서 제작 일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시나리오를 모니터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고 원고를 잘 정리해서 보내자 각색까지 부탁해왔다. 이어서 그 작품의 감독을 맡아달라는 제안도 들어왔다. “저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요즘,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그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잘 자라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제안받은 작품은 아이들을 위한 로봇공연이었다.

■ 로봇이 사람처럼 춤추고 연기할 수 있도록 연출해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자신의 비전과 잘 맞다고 생각해 과감하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 로봇공연은 스토리 개발부터 의상, 소품까지 섬세한 작업이 필요했다. 아이들을 관객으로 하는 뮤지컬이어서 성우들의 노래뿐만 아니라 로봇이 낼 수 있는 기계음까지 가미해야 했다. 무엇보다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의

연기인데, 사람처럼 움직일 수 없는 로봇이 배우로 등장하다 보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최대한 노래를 표현할 수 있는 동작, 가장 멋지고 가장 로봇다운 동작을 찾아내서 사람이 로봇과 함께 연기 연습을 해야 했다. 또한 로봇이 고장 나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많은 대비를 해야 했다. 예민한 로봇인 경우에는 분리하고 이동하고 다시 조립하는 동안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로봇 공연은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고, 또 재미있는 작업이었다.

■ 좋아하는 것과 관련된 분야를 폭넓게 탐색하세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녀의 꿈은 이러한 도전과 실험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 정 대표는 공연연출 이외에도 창업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토리 강의를 하고 있다. 스토리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창의적인 부분을 자극해서 재미와 감동을 발굴해내는 작업이다. 그녀는 이 분야로 진로를 정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기 권하며 이렇게 말한다. “스토리를 쓰는 것은 다양한 방면으로 연계될 수 있으므로, 영화와 같이 특정 분야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을 기다리고 있지만 말고 자신의 것을 좀 더 준비하는 여유를 가지는 게 좋습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창의적 커리어패스 사례집-문화콘텐츠 분야)



진로소식

커리어넷에서 진로심리검사 받아보기

커리어넷(www.career.go.kr)에서 나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진로심리검사(직업 적성, 가치관, 흥미, 성숙도)를 받아보세요.

직업적성검사	예상 소요시간: 20분(중), 30분(고) 총 문항 수: 59문항(중), 96문항(고)
직업가치관검사	예상 소요시간: 15분 총 문항 수: 96문항
직업흥미검사 (K)	예상 소요시간: 15분 총 문항 수: 96문항
직업흥미검사 (H)	예상 소요시간: 20분 총 문항 수: 141문항(중), 130문항(고)
직업성숙도검사	예상 소요시간: 10분 총 문항 수: 28문항
진로심리검사 바로가기	커리어넷(www.career.go.kr) > 진로심리검사 > 심리검사



봄, 드림레터 받아‘봄’ 인증 이벤트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드림레터를 받아보고 상품도 받아보세요.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만 인증해도 참여 가능!
두 가지 방법 모두 참여하면 당첨확률 UP!!

방법 1	1. 앱 스토어에서 맘에속 진로, e-진로채널을 검색 2. 드림레터를 보고 앱 스토어에 평점과 리뷰를 작성 3. http://goo.gl/forms/Y3wkm47YdE 에서 이벤트 참가 신청
방법 2	1. 앱 스토어에서 아이엠스쿨 검색 2. 아이엠스쿨 실행 > 매거진 > 진로·진학 > 드림레터 구독 3. http://goo.gl/forms/Y3wkm47YdE 에서 이벤트 참가 신청
이벤트 정보	· 기간 : 2016년 3월 28일(월) ~ 4월 15일(금) · 당첨자 발표 : 2016년 4월 29일(금) 커리어넷 공지사항 · 2만 원 상당의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총 25명)